

민주 '코인 의혹' 김남국 국회 윤리위 제소...“이 대표 지시”

이재명 “김남국, ‘상임위 코인거래’ 인정...책임 엄중히 물어야” 국힘, 제명 요구...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자신신고’ 결의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이 불거져 탈당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등 맹공을 이어갔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신신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확대간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지시에 따라 지도부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에 대한 당 지도부의 ‘극장 대응’ 등을 이유로 민심이 돌아서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위기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이 대표가 김 의원을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건 김 의원이 인정했다. 의원이 공직자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조사에 한계가 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자체처리지 않고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제소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당시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지도부는 의원 간 견해차가 있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비판과 불만이 점차 커져 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7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보유 의혹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의 거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김남국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민주당은 김남국에게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확대간담회의를 열어 탈당한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을 감싸고 돌려 방탄막을 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비난이 일자, 오늘에서야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난 8일 단독으로 제소했는데, 민주당은 이제야 ‘극장 제소’를 결정한 것”이라며 “왜 지금까지 그렇게 끼고 들었는지 무슨 은밀한 흑막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기관에 자



17일 국회 윤리특위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의 의원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및 의혹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왔다. 백해련 정무위원장은 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정책 소관 상임위이다. 앞서 전날 오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결의안 채택 논의가 시작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올림픽 버금가는 전국체전 개·폐회식

전남도, 연출 대행사 ‘씨포스트’ 확정...‘생명의 울림 속으로’ 주제

전남도가 2008년 개최 이후 15년만에 전남에서 다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 연출대행사로 씨포스트 연합체(컨소시엄)를 확정했다. 전남도는 기술 능력, 입찰 가격 등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거쳐 연출대행사를 선정했다. 씨포스트 연합체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폐회식,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2021경북전국체전 개·폐회식 등 대형행사 연출 및 제작 경험을 갖춘 씨포스트, 씨H&E, 씨SBS M&C, 씨KCTV광주방송이 참여했다. 전남도가 사전에 제시한 연출 주제 ‘생명의 울림 속으로’를 감각적이고 트렌디하게 재해석해 연출 계획을 제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폐회식 연출 대행사가 결정됨에 따라 박명성

총감독을 중심으로 연출 제작단을 구성, 개·폐회식을 태고의 전남에서 미래산업의 중심이 되는 전남의 모습을 미디어와 접목한 최첨단 무대 체계(메커니즘)를 활용해 뮤지컬 형식으로 표현할 계획이다. 또 6월께 개·폐회식 연출자문위원회를 열어 대행사의 연출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본격적으로 세부 연출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의 행사 기본계획 승인 등 유관기관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개·폐회식을 전 국민적 관심을 끄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올림픽에 버금가는 감동과 감탄을 자아내는 무대로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연출 기본 방향 보고회를 하는 등 개·폐회식 성공 개최를 위해 사전 노력을 기울여왔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개·폐회식은 체전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중요한 문화 이벤트이자, 세계로 응모하는 일류 전남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 미래 성장 비전을 전국에 홍보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세계를 향해 뛰는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의 위상을 드높이는 특별한 무대가 되도록 총감독, 대행사와 함께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꿀잼도시 광주’ 만들어 주세요”

시, 축제육성위원 26일까지 모집

광주시는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축제육성위원회는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축제 발굴과 육성, 축제 지원사항 심의, 유사축제 통합·조정·권고, 대표축제 선정·평가 등 광주 축제의 질적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 자격은 축제 및 관광분야 기관·단체에서 실무경력이 있거나 축제 및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지원은 오는 26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고사·공고 게시판에서 지원서와 개인정보보호 제공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과 함께 이메일(yunst6546@korea.kr) 또는 시청 관광도시과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6월 초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계절별 주제에 따라 축제를 그룹화하고 이를 견인해 갈 대표축제를 집중 육성하는 ‘축제의 도시 광주’ 브랜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유사축제를 통·폐합하거나 축제 및 행사의 개최시기·장소를 집적화해 시민의 흥미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성배 광주시 관광도시과장은 “광주만의 특색으로 사계절 내내 재미가 있는 축제를 육성·발굴하기 위해서는 축제육성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꿀잼도시 광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서 세계음식·문화 즐겨요”

21일 중외공원서 ‘세계인의 날’ 축제

광주시는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기념해 오는 21일 중외공원 일대에서 ‘제16주년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내·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캐나다·에티오피아·모로코·몽골 등 15개국 외국인 주민이 요리한 세계 전통음식을 맛보는 ‘세계음식홍보전’, 이집트·루마니아 등 10개국의 전통소품을 전시하고 직접 체험하는 세계문화체험전, 외국인 지원사업과 문화교류 프로그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지원기관 홍보전’, 광주문화재단·광주독립영화관 등이 참여하는 ‘문화다양성기관 홍보전’, 세계 각국의 수공예품과 의류 등을 판매하는 ‘지구촌 벼룩시장’ 등이 진행된다. 광주외국인출입국사무소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중국·베트남·네팔 출신 14명의 귀화자에게 국적증서 수여식을 한다. 또 광주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모범이민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올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다회용기와 현수막 사용을 지양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제를 실천한다. 자발적 친환경 실천활동을 위해 개인 용기를 지참한 시민에게는 세계음식홍보전 쿠폰을 지급한다. 또 이날 중외공원에서는 제58회 시민의 날, 광주비엔날레, 베트남의 날, 광주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도 함께 열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가득한 글로벌 축제장이 펼쳐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전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